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



데이터분석본부 본부전략팀 선임연구원 **이수진** Tel: 02-3299-6118 e-mail: sujin@kisti.re.kr

KEY FINDING

1.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는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고령화, 만성 질환자 증가, 비대면 진료 선호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제품에 따라 트래커, 스마트 워치, 패치, 스마트 의류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2. 세계 시장 규모는 2021년 162.23억 달러에서 연평균 13.2 % 성장해 2026년에는 301.53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시장 규모는 전세계 시장의 4.3% 비중으로 2021년 6.97억 달러에서 2026년에는 12.9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3.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개인 건강 정보 분석 솔루션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온도, 습도, 압력, 가속도, 모션 트래킹, 심박, 땀 등을 센싱하는 첨단 센서 기술의 발전으로 소형화되고 편리성을 갖춘 형태로 개발되고 있다.
4. 해당 분야 업체들은 생체 정보 측정 신뢰도를 향상하고 착용의 편의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소형화 및 저전력화를 갖춘 제품을 개발하면서 동시에 시대 트렌드에 부합하는 디자인을 고려한 제품으로 시장 참여를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

1) 시장의 개요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는 사용자가 자신의 몸에 장착하거나 착용해 자신의 건강 상태 및 행동 패턴 등을 실시간 감지, 진단, 모니터링하고 해당 정보들을 전달하는 기기이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건강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건강에 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자가 건강 관리도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고령화, 만성 질환자의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진료의 선호, 다양한 형태의 기기 출시 등으로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자용이 아닌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용 웨어러블 헬스케어

제품이 각광받고 있다. 2021년 기준 환자용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가 전체 시장의 33.2 %(53.86억 달러) 점유율을 차지한 반면 일반 소비자용 기기는 66.8 %(108.37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춰 소형화되고 편리성, 호환성, 유용성 등을 갖춘 기기가 활발하게 등장하고 있다.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는 제품에 따라 트래커(tracker), 스마트 워치(smart watch), 패치(patch), 스마트 의류(smart clothing)등 으로 구분된다. 트래커는 칼로리 소모량, 걸음 수, 수면의 질, 심박 수 등과 같은 개인 건강 정보를 추적하는 데 사용되며 스마트 워치는 혈압 및 심박 수와 같은 생체 신호를 기록하고 모니터링하는데 사용된다.

패치는 착용자의 신체에 부착되어 생체 정보를 측정하므로 정확도가 높은 편이다. 스마트 의류는 섬유 자체에 회로를 형성하거나 셔츠, 양말, 모자, 신발 등 의류에 센서를 내장해 데이터를 외부 기기와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심박 수, 활동 강도, 혈중 산소 포화도, 수면의 질, 호흡 수 등을 추적하는 데 사용된다.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의 가치사슬 구조는 기술 개발-제조-조립-유통-마케팅 및 판매-애프터서비스 단계로 구성된다. 최종 제품의 가격에 기여하는 단계별 비중은 기술 개발 5~10 %, 제조 35~40 %, 조립 15~20 %, 유통 20~25 %, 마케팅&판매 15~20 %, 애프터서비스 10~15 %로 나타났다.

표 1 가격 형성에 대한 가치사슬 단계별 기여도

부가가치 비중(%)	5~10	35~40	15~20	20~25	15~20	10~15
	기술개발	제조	조립	유통	마케팅 및 판매	애프터서비스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토타입 개발 공정 개발 공정 규제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트래커, 스마트 워치, 패치, 스마트 의류 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품 생산 테스팅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매자 - 홈케어 셋팅 - 개인 사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기 스펙 라이프스타일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트레이닝 과학적 지원 맞춤형 솔루션

출처 : Marketsandmarkets의 Wearable Healthcare Device 2021, The Science Times 2013, KISTI 재구성

그리고 산업 구조를 살펴보면, 후방 산업으로는 센서, IoT, 모바일,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인공 지능 등이 있으며, 전방 산업으로는 만성 질환 관리 서비스, 건강 관리 서비스, 재활 서비스, 피트니스, 건강 보험 등이 있다.

2) 정책 및 규제 현황

헬스케어 산업은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지만,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사회 이슈를 해결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넓은 국토와 높은 의료비, 유럽은 고령화, 중국은 넓은 국토와 의료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 서비스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식품의약국(FDA)은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계획(2017)’에서 ‘사전 인증 시범 사업(Pre-Cert Pilot Program)’에 선정된 기업의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의 인허가 과정을 단축해 주었다. 당시 선정된 기업으로는 애플, 핏빗, 삼성, 존슨앤존슨, 로슈, 베릴리 등이 있으며, 2018년 애플워치의 심전도 측정 기능을 의료 기기로 승인하고 2019년 일체형 웨어러블 인공 췌장을 획기적인 의료 기기로 지정하였다. 또한 2020년 FDA는 디지털 헬스 분

야에 대한 규제와 감독, 지원과 혁신을 통한 발전을 위하여 ‘디지털 헬스 센터’를 설립하고 웨어러블과 의료 기기 연구에 사용되는 기술 등 디지털 헬스 분야의 발전을 적극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유럽의 경우 ‘데이터’를 의료 산업 디지털 전환의 필수 자원으로 강조하고 있다. 특히 ‘호라이즌(Horizon) 2020’을 통해 헬스케어의 빅데이터 활용 연구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에덴(EHDEN) 프로젝트(2018~2024)’를 통해 의료 기관마다 각기 다른 데이터 구조와 규격을 표준화하는 공통 데이터 모델 네트워크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을 원격 의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정밀 의료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2015년 정밀 의료에 600억 위안(약 10조 5천억 원)을 투자해 2030년까지 100만 명의 유전체 분석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2020년 ‘정보 통신 기술 강화를 통한 COVID-19의 감염 예방 및 통제 업무에 관한 통지’를 통해 원격 의료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2020년 말에는 원격 의료를 통해 제공되는 병원 치료와 약물 처방 비용을 공보험으로 지원할 것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기반 헬스케어 발전 전략(2017)’,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2020)’ 등을 통해 빅데이터 구축, 정밀 의료, 스마트 병원 구축 등을 추진해 왔으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2022)’에서 10대 중점 추진 과제¹⁾를 발표하고 의료·IT 융합

형 산업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규제 개선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웨어러블 헬스케어 분야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사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손목 시계형 심전도 측정 장치를 의료 기기로 승인하였으며,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손목 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 서비스에 대하여 2,000명 이내 환자를 대상으로 2년간 실증이 가능하도록 실증 특례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2022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 지능-빅데이터 기술, 디지털-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혁신 의료 기기가 의료 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혁신 의료 기기에 대한 통합 심사·평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통합 심사·평가 제도를 통해 의료 현장에 진입하는 인공 지능, 디지털 혁신 의료 기기가 늘어나고 진입 기간은 390일에서 80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 관련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의류형 전자 소자를 위한 섬유 기반 능동 매트릭스 방식의 촉각 센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는 복합 구조체 프린팅 기술 스마트 부품을 활용한 웨어러블 시스템 및 웨어러블 기기의 개발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3) 시장 동향

1 시장 규모 및 전망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21년 162.23억 달러에서 연평균 13.2 %의 성장률로 2026년에는 301.53억 달러

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시장의 성장을 이끄는 주요 요인으로 건강과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관심 증가, 노인 인구의 증가와 만성 질환 발병률 증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비대면 선호,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른 스마트폰 기반 의료 기기 증가, 웨어러블 헬스케어 관련 기술의 진보 등이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스마트폰 보급률, 노인 인구의 증가, 의료 비용의 증가, 의료 서비스수요의 증가 및 정부의 디지털 헬스 증진 계획 등의 영향으로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하는 북미 지역이 가장 큰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 중국, 인도 등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APAC) 지역은 이헬스(eHealth) 구현을 위한 정부 정책, 인도 헬스케어 시장의 가파른 성장 등으로 가장 큰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북미 지역은 2021년 58.71억 달러에서 연평균 10.4 % 성장해 2026년 96.49억 달러, 유럽은 2021년 54.04억 달러에서 연평균 13.7 % 성장해 2026년 102.85억 달러,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2021년 37.6억 달러에서 연평균 16.6 % 성장해 2026년에는 80.88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제품별 시장을 살펴보면, 트래커가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적으로는 트래커는 2021년 66.42억 달러에서 연평균 13.9 % 성장해 2026년 127.27억 달러, 스마트 워치는 2021년 57.54억 달러에서 연평균 13 % 성장해 2026년 105.92억 달러, 패치는 2021년 28.59억 달러에서 연평균 12.3 % 성장해 2026년 51.12억 달러, 스마트 의류는 2021년 9.68억 달러에서 연평균 12.2 % 성장해 17.2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세계 시장의 4.3 %(6.97억 달러)²⁾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연평균 13.2 %로 성장해 2026년에는 12.9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2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의 세계 지역별 시장 규모

(단위: 억 달러)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CAGR (%)
세계	162.23	172.77	196.82	225.34	259.42	301.53	13.2
북미	58.71	61.06	67.89	75.84	85.16	96.49	10.4
유럽	54.04	57.87	66.27	76.24	88.15	102.85	13.7
APAC	37.60	41.27	48.43	57.09	67.64	80.88	16.6
기타	0.93	1.07	1.24	1.45	1.70	2.01	12.4

출처 : Marketsandmarkets의 Wearable Healthcare Device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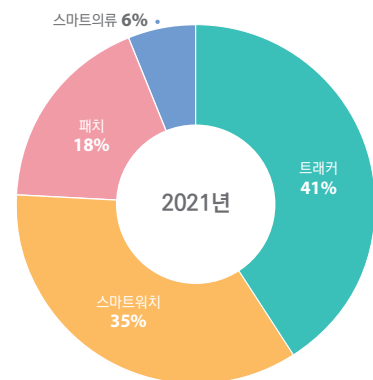
2) 참고 : 스마트 헬스케어, 한국IR협의회 2019

1) 10대 중점 추진 과제 : ① 시장 창출 지원 강화 ② 대규모 실증 지원을 통한 유효성-상업성 검증 ③ 수요 기반 시장 확보 ④ 디지털 치료 기기 개발 촉진 ⑤ 인공 지능 기반 진단 보조 기기 ⑥ 모빌리티 기반 원격 헬스케어 서비스 ⑦ 신체-정서적 보조 헬스케어 기기 개발 ⑧ 제도적 기반 마련 ⑨ 보건의료 데이터 접근성 제고 ⑩ 융복합 인력 양성 확대

그림 1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의 주요 제품별 시장 점유율 및 시장 규모

(단위: 억 달러)

제품별	2021년	2026년	CAGR(%)
트래커	66.42	127.27	13.9
스마트워치	57.54	105.92	13.0
패치	28.59	51.12	12.3
스마트 의류	9.68	17.22	12.2



출처 : Marketsandmarkets의 Wearable Healthcare Device 2021, KISTI 재구성

I 경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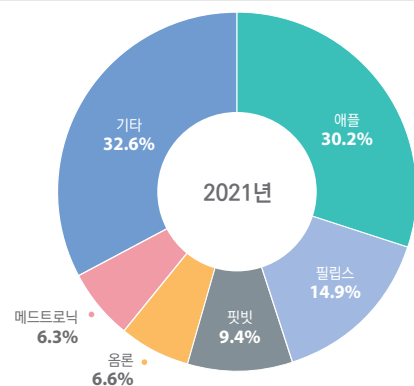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 관련 주요 업체로는 미국의 애플(APPLE), 핏빗(FITBIT), 네덜란드의 필립스(KONINKLIJKE PHILIPS), 일본의 옴론(OMRON CORPORATION), 아일랜드의 메드트로닉(MEDTRONIC PLC) 등이 있다. 이들이 차지하는 시장 비중은 전체 시장의 약 68 %로 5 개 업체가 전체 시장의 60~70 %를 차지하고 있어 과점 경쟁 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

애플의 주요 제품으로는 고성능 심전도 센서를 탑재한 애플 워치 시리즈가 있다. 애플은 2018년 애플 워치를 통한 심전도 측정, 심방 세도 감지 인공 지능 소프트웨어로 FDA에서 의료 기기 승인을 취득한 바 있으며, 애플 워치, 건강 관리 플랫폼인 헬스킷(HealthKit)과 같은 모바일 앱 등을 미국 내 주요 병원과 연계해 의료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에르메스(HERMES), 나이키(NIKE), 디

즈니(DISNEY) 등과의 협업을 통하여 패션 아이템 이미지를 강조하는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다. 필립스는 전자, 의료 및 조명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개인 건강, 진단 및 치료, 원격 관리 및 건강 정보 관련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를 선보이고 있으며, 전문가와 환자에게 의료용 앱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제품으로는 헤드 밴드형으로 수면 및 호흡을 측정하는 스마트 슬립(SMART SLEEP)과 가슴에 두르는 스트랩트형으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진단하는 나이트밸런스(NightBalance)가 있다. 핏빗은 2007년 설립된 손목 시계형 건강 관리 디바이스와 피트니스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다양한 피트니스 트래커와 스마트 워치 제품들을 출시하였으며 애플, 필립스에 이은 세계 3위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 기업으로 2019년 구글이 21억 달러에 인수하였다. 주요 제품으로 트래커형인 차지(CHARGE), 인스파이어(INSPIRE), 에이스(ACE) 등이 있으며 스마트 워치형인 센스(SENSE)와 버사(VERSA)가 있다.

그림 2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의 주요 업체별 시장점유율

업 체	시장점유율(%)
애플	30.2
필립스	14.9
핏빗	9.4
옴론	6.6
메드트로닉	6.3
기타	32.6









출처 : Marketsandmarkets의 Wearable Healthcare Device 2021, KISTI 재구성

옴론은 혈압계, 체성분계, 디지털 체온계, 진동 칫솔 등 가정 및 의료용 건강 제품과 건강 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는 회사로 웨어러블 헬스케어 관련 주요 제품으로는 손목에서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워치 하트가이드(HeartGuide) 등이 있다. 메드트로닉은 전 세계적으로 의료 기술, 서비스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심장, 당뇨, 신경, 척추 질환과 관련된 만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혁신적인 제품과 치료법을 제공하고 있다. 웨어러블 헬스케어 관련 주요 제품으로는 252 개의 전극 센서가 탑재되어 심장 부정맥을 진단하는 조끼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가 있다.

우리나라의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 업체를 살펴보면, 삼성전자, 휴이노, 올비, 참케어, 헬스리안 등이 있다. 삼성전자는 2014년에 트래커인 기어 핏2를 공개하였으며, 2019년에 심전도 측정 기능을 가

진 갤럭시 워치 액티브2를 출시하였다. 2021년에는 비침습 방식으로 혈당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 워치를 공개한 바 있다. 휴에노는 스마트 워치형 심전도 기기인 메모와치(MEMO Watch)와 인공 지능 기반 분석 소프트웨어를 출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 기기 승인을 받았다. 올비는 영아가 무호흡 상태가 지속되면 부모에게 알람을 보내는 영아용 웨어러블 기기인 올비를 선보였다. 참케어는 기존 혈압 측정 장치의 한계를 개선하고 장소와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혈압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손목형 웨어러블 혈압계를 출시하였으며, 헬스리안은 실시간으로 심혈관 상태를 연속 측정하고 저장, 확인해 맞춤형 건강 관리와 위급 상황 감시가 가능한 웨어러블 심전계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표 3 국내 업체별 주요 제품

업체명	제품		
삼성전자	기어 핏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트니스 트래커로 심박수 측정에 주로 사용 • 기압계와 심박계, 자이로스코프를 갖추고 있으며 방수 기능을 지원
	갤럭시워치 액티브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스타일에 맞춰 건강 관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
휴이노	메모패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전도 측정기로 배터리로 14일까지 장시간 측정이 가능하며 자체 메모리가 있어 다른 디바이스와 연결할 필요 없음 • 메모 패치를 통해 측정한 데이터는 메모 시 기술을 통해 의료진에게 전달됨
올비	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24 개월의 영아의 무호흡 상태를 모니터링 하여 영아 돌연사 증후군 방지
참케어	H2-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압 정밀 측정기로 본체 무게가 43 g으로 출시된 제품 중 작고 가벼운 혈압계
헬스리안	wearECG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간으로 12 채널 심전도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초소형 초경량 홀터(Halter) 모니터 • 자체 개발한 10 개 전극으로 이루어진 일체형 전극과 28 g의 작고 가벼운 본체로 환자의 편의성과 활동성 개선


출처 : 각 업체별 홈페이지

4) 애널리스트 인사이트

정부는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19년 혁신적 신기술을 지닌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해 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으로 의료용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와 경쟁력 확보³⁾를 지원하였다. 또한 한국 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정부 연구기관은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 분야 주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개인들의 건강 관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료용이 아닌 일반 소비자용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가 각광받고 있으며, 특히 자신의 몸 상태를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트래커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적으로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 인력 부족, 의료비 부담 등이 이슈화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데이터 분석 기술이 헬스케어 분야에 접목되어 다양한 개인 건

강 정보 분석 솔루션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온도·습도, 압력, 가속도, 모션 트래킹, 심박, 땀, 자외선 센서 등 센서 기술의 발전으로 기기의 소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상기 사항을 반영해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 시장에 진출을 모색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고려할 주요 사업 전략 방향은 다음과 같다.

- ① 고신뢰 및 개인화 서비스 제공 : 센서 기술 확보 등을 통해 생체 정보 측정 신뢰도를 향상하고 사용자의 실시간 생체 정보 데이터를 활용해 초 개인화 서비스 제공
- ② 소형화, 저전력화 : 착용 편의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기기 소형화와 더불어 배터리 저전력화 요구
- ③ 감성 마케팅, 디자인 : 기능 뿐만 아니라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감성 마케팅 전략과 패션 트렌드에 부합하는 디자인 필요
- ④ 종합 생태계 구축 고려 : 병원과의 연계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로 확장 고려 

참고문헌

- [1] 글로벌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 동향과 주요 핵심 기술/제도이슈,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2022.01
- [2] 당신의 건강을 책임져 드립니다. 헬스케어 웨어러블, LG CNS, 2016.02
- [3] 디지털 헬스케어의 개화, 삼일 PwC경영연구원, 2022.07.
- [4]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 대한민국정부, 2022.04
- [5] 스마트 헬스케어, 한국IR협의회, 2019.09
- [6] 메드트로닉, '인슐린 펌프' 진화 선도...당뇨 환자 제2의 삶 열다, 의학신문, 2022.07.
- [7] 유망시장 Issue Report, 웨어러블 의료기기, Innopolis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021.09.
- [8]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를 이용한 의료 서비스 모델 개발, 이승용, 2019. 02
- [9] 인공지능, 디지털 혁신의료기기 의료현장 진입 기간 1/5로 단축, 보건복지부, 2022.10.
- [10]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2022-2024 의료기기, 중소벤처기업부
- [11] 美 빅테크들의 격전지가 된 헬스케어, 데일리 핫 경제, 2021. 10.
- [12] 美 FDA, '디지털 헬스센터' 설립.. "제도정비, 지원과 혁신", BioSpectator, 2020.09.
- [13] 美 FDA,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혁신계획 발표, Bioln, 2017.
- [14] MarketsandMarkets, Wearable Healthcare Devices Market, 2021.11

표 4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의 시장 기회 분석



3) 국내 스타트업인 휴이노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 적용으로 1호 임상을 마치고 국내 최초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었으며 의사들이 메모 위치를 처방할 수 있게 됨.

ASTI MARKET INSIGHT



본원 (우)34141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T. 042) 869-1004, 1237 F. 042) 869-1091

분원 (우)0245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6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T. 02)3299-6114 F. 02)3299-6244

비매품/무료

